

대한민국 도시재생 일반지 명성 이어가

전주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례공유 발표대회서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 최우수상 수상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우수성을 또 한 번 인정 받으면서 대한민국 도시재생 일반지임을 재확인했다. 전주시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방치된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거점으로 탈바꿈시킨 팔복예술공장과 찻마중길 조성, 도시재생 뉴딜 등 전주형 문화재생사업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도시재생 일반지로 불려왔다.

전주시는 27일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에서 열린 '도시재생 사례공유 발표대회'에서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로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시재생 사례공유 발표대회는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지자체와 도시재생 관련 단체 등을 선정해 포상하는 행사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창출된 지역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 도시재생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대회에서 시는 60년 가까이 성매매집결지였던 선미촌을 여성인권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로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지난 2014년부터 서노송예술촌 프로



전주시는 27일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에서 열린 '도시재생 사례공유 발표대회'에서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로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젝트에 도입한 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폐·공가 매입을 통한 도시재생 거점을 확보해 △물결서사(예술책방) △시티가든(휴식공간) △소통협력공간 성평등전주 △새활용센터 다시봄 △뜻밖의 미술관(예술작품 전시관 △놀라운 예술터 △노송너우스박물관(마을사박물관) 등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의 점진적인 기능전환을 추진했다.

또 어두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안등·가로등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골목길 정비 △도로 곡선화·인도 설치 △가로수 식재 등을 진행해 안전한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이와 동시에 시는 선미촌 내 빈 일소를 활용해 청년과 예술인들을 위한 팝업스토어로 운영하고 있으며, 696번가 프로젝트, 예술몽당 작품 등 문화

예술 활동을 추진해 누구나 거리낌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2000년대 초반 85곳에 달했던 성매매업소는 현재 사실상 영업 중단돼 전국 최초로 성매매업소의 자진폐쇄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제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10월 열린 '제7차 도시재생광역협력포럼'에서도 팔복예술공장과 서노송예술촌 등을 도시재생 뉴딜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도시재생 일반지로서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선미촌을 서노송예술촌으로 바꾼 힘은 여성인권의 관점, 문화예술의 힘, 주민과의 연대가 핵심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인권과 예술을 주제로 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서노송예술촌2.0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보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도시재생 뉴딜과 함께하는 아시아 문화심장터 전주'를 주제로 한 홍보부스를 운영해 전주시 도시재생 추진사업에 대해 전국 지자체 등과 공유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도서관 회원가입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전주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본격 시작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했던 도서관 회원가입 절차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전주시는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도서관 회원가입은 시민들이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한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능했지만, 시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거주지를 확인하는 비대면 자격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으로 도서관 회원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에서 회원가입 뒤 인증 창에서 전주시 거주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조회·확인하면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도 모바일 회원증 발급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되면 1회 10권까지, 14일간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서비스를 통해 20%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기존 방문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여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립도서관 누적 회원수는 34만8866명으로, 최근 1년 이내 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관 대출회·확인하면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전주시,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산불감시 근로자 147명 배치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태세 확립·입산자 관리 중심 예방 집중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하는 가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한다.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할 산불감시원 64명과 산불전문진화대 65명, 산불기계화진화대 18명 등 산불감시 근로자 총 147명이 산불 취약지와 거점 지역에 배치된다. 산불 진화차량 5대와 드론 6대 등 39종, 4055점의 진화장비도 갖춰진다.

시는 산불감시 카메라와 드론,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계된 GPS 단말기를 활용해 빈틈없는 산불감시에 나선다는 한편 전북도청 산림부서와 함께 공조체계를 통해 산불 발생 시 공중진화용 헬기 9대를 지원받기로 했다.

또한 시는 올해 가을이 평년에 비해 낮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데다 워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단풍철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산자 관리 중심의 예방·대응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확산, 행차봉, 건지산 등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인화물질 안 가지고 다니기 △취사 행위 안하기 △담배 피우지 않기 △쓰레기 뒤가져가기 등을 알리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내버스 승강장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한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오후 8시가 넘으면 시·구청 당직실과 연계돼 24시간 산불감시 활동이 이뤄진다.

전주시 정일도시자원순환본부 관계자는 "논밭두렁 안태우기, 건전한 등산 활동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산에서 불법 행위(취사, 불피우기 등)를 하거나 연기 등을 발견했을 시에는 즉시 전주시 산림부서(063-281-2511, 220-5421, 270-6621)나 소방관서(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진행

책이 시민들의 삶이 되는 '책의 도시'를 만들고 있는 전주시가 시민 생활권 주변에 위치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도서관학교'를 운영했다.

지난 2017년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도서관학교는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는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총 4차례에 걸쳐 추진됐다.

교육은 △특화 사례를 통해 바라본 작은도서관 △도서관 공모사업 시작하기 △책은 책이란 무엇인가? △책마루작은도서관의 시작과 변화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시는 사립작은도서관 확



성화를 위해 총 40곳에 월 3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순회사서 파견, 도서구입비 지원, 운영자 회계교육,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통한 기능보강 등 다각적으로 지원에 힘쓰고 있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과 우수작은도서관 벤치마킹 등을 다시 개최해 사립작은도서관 전반의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사회적경제조직, 탄소중립 업무협약

전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동참한다.

전주시는 27일 이수후 전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장, 이창우 전주시마을기업협의회장, 오춘자 전주시협동조합협의회장, 이창승 전주시자활기업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와 탄소중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들은 △병·난방 효율 높이기 △전자기기 사용 시 전력소비 최소화하기 △저탄소 인증제품 및 우리 지역 농축산물 구매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배출 생활화하기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 행동에 협력기로 했다.

향후 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와 여성단체협의회 등 유관 단체들



을 비롯해 기독교·원불교·불교·천주교 등 4대 종단과 릴레이 협약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북은행 및 농협 5개소 등 금융계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 금리 우대 등을 추진기로 한 바 있다. 또 시청사 인근 카페 18개소와 탄소중립 실천협약을 맺는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도 벌이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